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원의 주도권 성경: 출애굽기 3장 10-20절

Tag: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3:10-20)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흔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의는 우리편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강조형)

틀린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는 않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100% 완벽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고, 사람들은 오직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며 순종하면 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이 싫은 사람도 있었고, 그 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왕의 의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핑계거리가 생겨 참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이 마치 왕의 잔치와 같다. 사람은 그 구원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잔치를 위해서 사람과 상의한 적이 없다. 사람에게 잔치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거나,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잔치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의와 동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속감과 친근감,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예절을 요구하신다. 한 마디로 초청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가치관, 동의와 동참, 소속감과 친근감, 잔치에 대한 예절 등은 초청장을 받는 순간 비로소 사람의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반응이다.

물론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단순히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없을 뿐이다.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다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할 뿐이다.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는 것조차도 잘 못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해가시는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세계는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해졌다. (타락이라는 말의 갑골문자는 예배를 드리다가 고기를 떨어뜨리다, 비가 와서 낙엽이 떨어지고 각자 제 길로 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졌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 장정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년 가까이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면서 동물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었다. 하나님은 세대 분할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도록 구조조정 하셨다. 즉 조상의 역할에 따라서 후손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신 셈이다.(조상의 죄의 댓가가 아니라, 저주의 댓가를 물려 받았

고, 저주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물려 받은 셈.) 결국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홍수로 인한 수명단축은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셈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기 위한 키맨을 선택하셨는데, 그 키맨은 주로 경건한 사람(노아), 믿음의 사람(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이삭), 기도하는 사람(야곱), 소망하는 사람(요셉), 겸손한 사람(모세) 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키맨이 빠진 역사는 단순히 홍망성쇠의 역사일 뿐이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의 역사들로 부르시는 순간.
-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모세의 자기 부정. 왜 그런지 암시됨.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함.
- 내가 왜 바로에게 갑니까? (그 궁정에서 자랐지 않는가?)
- 내가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네 조상의 동포 아닌가?)
- 왜 이제와서 그러니까?
- 네가 늙고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성경 전반을 살펴본 후 내린 해석)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가시적이고 간단한 소명을 주셨다.
-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책임감)

- 와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 이곳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곳.
- 이곳은 내가 나를 만난 곳.
-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 이 산에서,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 사건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로힘(복수형)’, ‘여호와’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번역이 아닌 직역은 ‘나는 나다’이다.
- 이름을 뜻으로 풀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이다.
- 즉 누군가 나를 부르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마 하고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뜻.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니시므로 누군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는 뜻.
- 그래서 ‘나는 나다’ 라는 자음 4글자에 ‘주님’이라는 낱말에서 자음을 제거하고 난 모음을 붙여서 기록하고 읽기는 ‘아도나이’(주님)이라고 발음함.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특히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것을 명하심.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7절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다. 다름 아닌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장로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그들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9절에는 애굽의 역사에 심판주로 개입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순종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사명자임을 명심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21절

Tag: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주제과 약)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자는 부끄러운 자)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것이 한 증거)에 점점 나아가나니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2:13-21)

뛰어난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화려한 언변술사나, 연기력이 좋고 귀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아집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김일성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이다.

다윗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리더이고,
우리는 그런 리더를 알아보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 시대의 리더.